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방안 마련

□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*은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5월 17일부터 시행함.

- 지난 4개월간의 미소금융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500만원 내외 긴급·소액 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순수창업자금에 대한 대출보다 영업자금에 대한 대출(건수기준 85.2%)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미소금융 방문 및 상담자들은 미소금융 사업자금 지원과 관련한 일부 요건이 까다롭고 대출의 신청에서 집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함.
- 이러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동시에 서민들의 긴급·소액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에 대한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함.

*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·운용을 위하여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사업(Micro Credit)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.

□ 이번 확대 방안에서는 긴급·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의 대폭 확대,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 완화 등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 절차를 개선하기로 결정함.

- 소액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, 은행 및 미소금융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‘전통시장 영세상인’ 대출에 기업과 은행을 참여시키고 소액대출 모델을 ‘전통시장 상인’에서 ‘여타 취약계층’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.
- 긴급·소액 사업자금에 대한 지원요건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을 50%에서 30%로 완화하고 영업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며 컨설팅 절차도 간소화하여 시행함.
- 미소금융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, 순회상담 등을 개최하고 창구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미소금융도 활발히 전개하기로 함.

(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등, 5/17)